

# 벤처는 그래도 기술력으로 승부 해야 '벤처'



민 동 옥  
엠씨넥스 대표

아직도 '벤처'란 단어에 가슴 설레는 사람이 있다면 시대 부적응자로 취급당할지 모르겠다. 2000년대 초반 벤처 열풍은 사라졌고, 90년대 벤처로 시작해 그 이후 벤처 신화를 만들었던 회사들도 하나둘 사라져간 마당이니 그럴 만도 하다.

혹자는 이 땅이 벤처가 생존하기엔 버겁다는 말을 하기도 한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메이저 기업에 철저히 의존해야만 하는 풍토는 벤처들에게 '희망'보다 '절망'을 안겼으므로 공감할 수 있는 것이다.

벤처가 사라져가는 이 시기, 우리는 벤처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되새겨볼 때라 판단된다.

자고로 벤처는 '기술력'으로 승부를 띄우는 회사이다. 많은 유혹이 닥치더라도 기술력을 자부심으로 내세우며 타협하지 않고 자존심을 굳건히 지키는 이들이 벤처인이다.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는 '한 방' 문화가 자리 잡았다. '한 방'에 회사를 키우고, 한 방에 부를 얻고, 한 방에 권력을 얻고.

이 문화에 벤처들도 자유롭지 못했다. 예전에도 끊임없이 살아 숨쉬었던 벤처들의 존재가 2000년 초반 '벤처 열풍'이란 말이 나돌 만큼 세상을 떠들썩했던 것도 그런 이유이다. 코스닥에 입성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란 '한 방' 문화가 벤처 광풍을 만들었다.

자신이 연구한 기술을 세상에 내보내기 위해 몇 년 세월동안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여전히 벤처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는 많은 이들을. 그들의 땀을. 세상이 불가능할 것으로 여기는 그 속에서 '벤처니까 가능할 거야'를 앞세워 도전하고, 그 도전으로 전혀 새로운 것을 발굴해내는 그 창의성 말이다.

다시 생각을 해보자. 자신이 연구한 기술을 세상에 내보내기 위해 몇 년 세월동안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여전히 벤처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는 많은 이들을. 그들의 땀을.

세인의 잣대로 평가했을 때, 그들은 크게 성공하지 못한 것 같지만 적어도 벤처의 기본 정신을 버린 적은 없다. 정도를 벗어나지 못해 때돈을 벌진 못했을 지라도 풍파에 휩쓸리지는 않았다.

그들이 장기간 '정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벤처의 기본인 '자존심'과 '기술력'을 전면에 내세웠기 때문이다. '일확천금'을 노리고 매번 기회만 엿보았다면 그렇게 오랜 시간동안 벤처로 존재할 수는 없었을 터이다.

그들에게 또한 창의성이 있었다.

세상이 불가능할 것으로 여기는 그 속에서 '벤처니까 가능할 거야'를 앞세워 도전하고, 그 도전으로 전혀 새로운 것을 발굴해내는 그 창의성 말이다.

세상에 카메라모듈 전문 기업으로 알려진 엠씨넥스 역시 최근 자동포커스가 지원되는 카메라모듈에 지상파 DMB 안테나를 집적시킨 '안테나 일체형 카메라모듈'을 개발했다.

이 제품은 지상파DMB 휴대폰이나 지상파DMB 전용단말기에 채용되던 10~20cm 정도의 안테나를 카메라모듈에 집적시킨 획기적인 제품이다. 이로 인해 T-DMB폰의 내부 공간을 6%나 줄일 수 있어 T-DMB폰을 일반 휴대폰만큼 소형화시킬 수 있다.

안테나도 엠씨넥스가 개발했다. 특허를 고려해 카메라 모듈 개발단계부터 휴대폰 제조업체와 협력할 생각은 아예 하지 않았다. 엠씨넥스 단독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해 얻은 결과물이다.

이 제품 개발 성공으로 엠씨넥스가 얼마나 많은 수익을 창출할 것인지 그것은 알 수 없다. 그렇다고 직원들이 한 순간에 떼돈을 벌 것으로 여긴다고 생각되지도 않는다.

벤처의 창의성과 벤처의 자존심이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만들었고, 창의성이 현실화돼 기쁜 것이고, 벤처의 자존심이 지켜져 흐뭇한 것이다. 돈은 둘째 문제이다.

지금도 그 어느 곳에서 벤처인들은 노력하고 있다.

연구 노트에 기록된 것을 상품화시키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그들의 존재가치가 귀중해지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하리라 본다.

그들의 열정과 노력이 폄하당하지 않고 존중받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져야만 벤처도 살고, 메이저 기업도 살 수 있지 않을까 한다.☑